

‘있다가’와 ‘이따가’

나카무라 마유

1. 들어가며

부사 ‘이따가’를 연구하는 데 앞서 ‘이따가’의 용례에 섞여 있는 ‘있다가’의 용례를 가려내기 위해 ‘있다가’와 ‘이따가’의 차이를 확립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고 되어 있으며 백문식(2006:2010:630)에도 ‘이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라고 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2017)에는 ‘이따가’는 수식어 없이 사용해야 하며 수식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있다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으로 수식어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있다가’를 사용하고 ‘이따가’는 수식어 없이 사용함을 알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좀 더 자세히 양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1)현대어문어원시말뭉치에서 ‘있다가’, ‘있다’, ‘이따가’, ‘이따’를 추출하여ⁱ 앞의 두 가지는 다시 거기서 보조용언 ‘있다’의 용례, 보조용언 ‘보니’, ‘보면’과 함께 사용된 용례, ‘싫다’와 함께 사용된 용례, 인용문에 사용된 용례, ‘못하다’와 함께 사용된 용례를 제외하여 각각 777개, 191개, 100개, 129개를 얻을 수 있었다ⁱⁱ. 그 쓰임새를 앞에 오는 수식어, 피수식 용언과의 사이에 오는 수식어, 피수식 용언의 시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앞으로 ‘있다가’ 및 ‘있다’를 ‘있다가’, ‘이따가’ 및 ‘이따’를 ‘이따가’라고 부르기로 한다.

3. ‘있다가’와 ‘이따가’의 쓰임새

3.1. ‘있다가’의 쓰임새

‘있다가’는 용언 ‘있다’의 활용형이므로 ‘있다’의 의미가 골고루 나타나는 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분류를 좀 더 간략하게 하여 ‘있다가’에 나타난 의미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분류		있다가		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사	1. 어느곳에 머물다	242	31.1%	64	33.5%
	2. 상태를 유지하다	105	13.5%	6	3.1%
	3. 시간이 경과하다	274	35.3%	100	52.4%
형용사	4. 어느곳에 존재하는 상태이다	40	5.1%	4	2.1%
	5. 어떠한 지위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99	12.7%	7	3.7%
부사	“이따가”의 잘못으로 보이는 것	8	1.0%	9	4.7%
	분석 불능	9	1.2%	1	0.5%
	합계	777	100.0%	191	100.0%

<표 1> '있다가'에 나타난 '있다'의 의미 분류

- (1) a. 조금만 더 있다가 가. <BRE00313>
b. 저는요, 가만 있다가 가끔씩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곤 해요. <2BB9408>
c. 돈 5 백만 원 열흘 있다가 갚으면 안 될까요? <2CE00002>
d. 영원한 종교와 잠시 있다가 곧 사라져 버리고 마는 종교가 있다. <BRH00105>
e. 과학자인 보일의 조수로 있다가 1665 년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다. <BDXX0010>
f. 일찍 들어갈게. 있다가 봐. <BRE00291>

a가 1. 머물다, b가 2. 상태 유지, c가 3. 시간의 경과, d가 4. 존재 상태, e가 5. 지위, f가 부사 ‘이따가’의 용법으로 보이는 용례이다. 이 가운데, c의 시간 경과 의미와 부사 ‘이따가’와 연관되는 의미이다. “조금 있다가” 곧 “조금 시간이 경과한 뒤에”가 즉 “이따가”인 것이다.

시간 경과 의미와 부사 ‘이따가’의 잘못으로 보이는 용례를 비교하면 시간 경과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식어구가 반드시 ‘있다가’ 앞에 있는데 부사 ‘이따가’의 잘못으로 보이는 용례에는 그러한 수식어구가 하나도 없다. 이것으로부터 용언 ‘있다’가 어미 ‘-다가’와 함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수식어를 수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있다가’의 용례 가운데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없는 용례는 ‘있다가’가 394개, ‘있다’가 42개 있으나 둘 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용법은 보이지 않고 부사 ‘이따가’의 잘못으로 보이는 용례가 각각 8개와 9개 보인다:

- (2) a.? 너 있다가 신입식 끝나고 초상날 줄 알아. <BRE00319>
b.? 그러니 급속 씨! 있다가 저녁 좀 차려 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2CJ00009>
c.? 오늘은 앞아서 구경만 해요. 인사는 있다가 하고. <CE000074>
d.? 이제 있다가 국회의 언론발전 위원회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마는(후략)..... <4BK01003>
e.? 이 문제는 또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있다 계속하기로 하구요. <4BK01005>

‘있다가’와 ‘이따가’

- f.? 그러자. 있다 내가 <미인>으로 갈게. <7BH02030>
 g.? 일반적인 원인은 있다 말씀해 주시구요. <4BK01009>
 h.? 진정하세요. 아직 약방문이 안 열렸어요. 제가 있다 받아다 드리지요. <2CJ00043>

(2)의 용례들은 모두 ‘조금’을 추가하거나 ‘이따가’ 혹은 ‘이따’로 바꾸면 정문이 됨직하게 보인다:

- (2) a'. 너 조금 있다가 신입식 끝나고 초상날 줄 알아.
 b'. 조금 있다가 저녁 좀 차려 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c'. 인사는 조금 있다가 하고.
 d'. 이제 조금 있다가 국회의 언론발전 위원회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마는
 e'. 이 문제는 또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계속하기로 하구요.
 f'. 조금 있다 내가 <미인>으로 갈게.
 g'. 일반적인 원인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구요.
 h'. 제가 조금 있다 받아다 드리지요.
- (2) a". 너 이따가 신입식 끝나고 초상날 줄 알아.
 b". 이따가 저녁 좀 차려 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c". 인사는 이따가 하고.
 d". 이제 이따가 국회의 언론발전 위원회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마는
 e". 이 문제는 또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이따 계속하기로 하구요.
 f". 이따 내가 <미인>으로 갈게.
 g". 일반적인 원인은 이따 말씀해 주시구요.
 h". 제가 이따 받아다 드리지요.

3.2. ‘이따가’의 쓰임새

부사 ‘이따가’는 선행연구에 의해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으로 수식어 없이 사용됨이 밝혀져 있는데 필자가 얻은 용례에서도 그러함이 나타났다. ‘이따가’의 수식어 유무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따가		이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식어 없음	98	98.0%	116	89.9%
수식어 있음	2	2.0%	13	10.1%
합계	100	100.0%	129	100.0%

<표 2> ‘이따가’와 수식어의 유무

‘이따가’의 용례에 나타난 수식어는 모두 ‘조금’류이며 ‘조금 있다’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 (3) a. 그래, 이따가 갈게. <4BB99I03>
 b.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찾아봐 줘요. 내가 이따 가질러 갈게. <2CJ00053>
 c.? 5 호선을 타야 되나 보다. 좀 이따가 지하철은 유미가 내리는 역에 들어갔다. <7BH03033>
 d.? 저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따 그리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4BK01018>

- (3) c'. 좀 있다가 지하철은 유미가 내리는 역에 들어갔다.
 d'. 저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있다 그리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4. '있다가' 및 '이따가'와 피수식 용언 사이의 수식어
 '이따가'와 피수식 용언 사이에는 때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종종 보인다:

- (4) a. 지금이 5 시니까 이따가 9 시에 요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와. <2CE00001>
 b. 현진이 이따가 오후에 전화 한번 넣어 주소. <4BE86004>
 c. 그럼 이따가 퇴근시간에 볼시다. <4BE96001>
 d. 형우야. 이따 밤에 보자. <BRE00091>
 e. 셋 옥졸이 온다. 내 이따 술 들일 적에 다시 와서 의논을 허지. <2BEXXX08>
 f. 글썸, 이따가 나오면 알게 된다니까. <4BE01007>
 g. 혹시 이따가 사감이 들어오더라도 서울서 오는 오빠라구 하세요. <BRE00336>
 h. 이따가 산역 끝내고 저 친구들하고 술 한잔 같이 해야겠다. <2CE00009>
 i. 나 지금 좀 바쁘게 됐는데……. 이따 갔다 와서 얘기 듣기로 하지. <CE000028>

그러나 '있다가'와 피수식 용언 사이에는 그러한 수식어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1 개만 보였다:

- (5) KBS 들어와가지구 얼마 안 있다가 60 한 7 년 돈가 8 년도 쫓에서 연기를 못 헌다구 쫓겨났습니다. <BK950024>

'있다가'와 피수식 용언 사이에는 때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이따가'의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있다가'는 앞에 구체적인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또 수식어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같은 경우는 '얼마 안'이라는 애매한 수식어이므로 뒤에 수식어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있다가’와 ‘이따가’

- (6) a. 한참 있다가 그 서리가 측간 다녀오겠다기에 허락을 했다.
<6BA02A31>
b. 잠시 있다가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BRE00088>
c. 떠칠 있다가 그놈의 장농 열 마리만 실어다 주마! <CH000095>
d. 그러고는 헤어졌는데, 한 시간쯤 있다가 난데없이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BRHO0431>
e. 정 어려우면 일년 있다가 다음 사람을 천거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2CC00106>
f. 심한 경우 죽은 지 몇 개월 있다가 발견되는 적도 있었다. <4BB99104>

5. 피수식 용언의 시제

‘있다가’의 피수식 용언은 시제가 자유롭다. 미래, 현재, 과거, 그리고 회상까지 나타난다:

- (7) a. 일년 있다가 ‘나가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인사다. <2BB9306>
b. 조금 있다가 계집애가 P 에게로 오더니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인다. <2BEXXX11>
c. 뺨은 대답은 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구슬을 또 하나 주었다. <BRHO0100>
d. 그러고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운의 손이 천천히 여자의 목으로 올라오더니 조금 있다가 그 손은 경련이 난 듯 여자의 가는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랍니다. <CE000028>

그 한편 부사 ‘이따가’의 피수식 용언은 과거나 회상이 거의 안 보이고 현재형도 거의 안 보이며 주로 미래의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a. 응, 그럼 돌아가게, 내 이따가 가 보리. <BRE00079>
b. 지방방송은 이따가 결산보고 끝난 다음에 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BE00003>
c. 이따가 기름을 사러 읍내에 갈 텐데, 급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겠소? <BRE00075>
d. 옆집에다 채웠어요. 이따가 깨면 데리고 올 거예요. <2CE00001>
e. 그냥 뒤. 이따가 내가 데리고 갈게. <6BE00012>
f. 이따가 날이 어두워지면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뵈려던 참이었는데요. <BRE00281>

- (9) f 도 회상과 과거시제가 결합된 것처럼 보이나 ‘이따가’가 수식하는 것은 ‘뵈려-’까지로 생각된다.

이는 ‘있다가’는 용언 ‘있다’의 활용형이니 만큼 그 피수식 용언의 시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시간이 조금 경과한 뒤에”라는 의미의 부사인 ‘이따가’의 피수식 용언의 시제는 주로 미래형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나오며

본고에서 밝혀진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있다가’는 반드시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수반해서 사용되며 ‘이따가’는 수반하지 않는다. 즉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앞에 있는 ‘이따가’는 ‘있다가’의 잘못이다. 둘째, ‘이따가’는 종종 피수식 용언과의 사이에 때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삽입하여 사용되지만 ‘있다가’는 그렇지 않다. 셋째, ‘이따가’는 피수식 용언이 미래형이나 명령형, 청유형만 취하며 ‘있다가’의 피수식 용언은 그러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인다.

이를 바탕으로 금후 ‘이따가’와 ‘나중에’ 및 ‘다음에’의 차이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2017) ‘[답변]조금 있다가’ (답변일 2017.5.12.)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17983
백문식(2006;2010) ‘우리말 부사사전’ 서울: 박이정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1)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2011.12.수정판”

i ‘있다가’는 2,514 개, ‘있다’는 2,609 개가 추출되었다.

ii 출전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1)의 파일명으로 제시한다.

‘있다가’와 ‘이따가’

나카무라 마유

‘있다가’는 용언 ‘있다’의 활용형이므로 ‘있다’의 의미가 골고루 나타나는 데 그 가운데, 시간 경과와 의미가 부사 ‘이따가’와 연관되는 의미이며 “조금 있다가” 곧 “조금 시간이 경과한 뒤에”가 즉 “이따가”이다. ‘있다가’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려면 앞에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이따가’와 피수식 용언 사이에는 때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종종 보이나 ‘있다가’와 피수식 용언 사이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그 이유는 ‘있다가’는 앞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또 수식어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있다가’의 피수식 용언은 시제가 자유로우며 미래, 현재, 과거, 그리고 회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따가’의 피수식 용언은 과거나 회상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현재형도 잘 보이지 않고 주로 미래의 사건에 사용된다. 이는 ‘있다가’는 용언 ‘있다’의 활용형이니만큼 그 피수식 용언의 시제가 골고루 나타나지만 “시간이 조금 경과한 뒤에”라는 의미의 부사인 ‘이따가’의 피수식 용언의 시제는 주로 미래형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